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 지난해 지역우선구매 또 줄었다

9065억원 구매·전년비 1962억 감소…목표액 달성률 80.4% 그쳐
한전, 재무위기에 2년째 감소…사학연금·전력거래소 등 11곳 증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광주·전남 소재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에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지역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목표치를 1조 1279억원으로 잡았지만, 목표 달성치도 80%에 그쳤다.

6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7곳의 지난해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액은 9065억원으로 전년(1조1027억원) 대비 17.8% 줄었다.

2018년 도입된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제도는 전국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액은 2021년 8120억원, 2022년 1조

4656억원 등 제도 도입 이후 한전을 중심으로 상승해왔다. 하지만 2023년 한전이 4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적자 등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5년만에 감소 전환했고, 지난해까지 2년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우선 구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전이 지난해 하반기에 흑자전환했지만, 여전히 3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등 재무위기가 지속되면서 우선구매액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액은 사전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누리집에 공시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목표액은 1조1279억원이었지만, 실제 우선구매액은 9065억원(80.4%)에 그쳤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한전의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액은 8206억원으로, 전년(1조239억원)의 80.1%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전의 전체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액 비중도 92.9%에서 90.5%로, 전년도 대비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어 한전KPS(174억원), 한국전력거래소(171억원), 한전KDN(127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117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6억원), 한국농어촌공사(62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7개 이전 공공기관 중 6곳은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액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11곳은 증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구매액 증가폭이 가장 컸던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57.8%)이었으며, 우정정보관리원(52.7%), 한국전력거래소(42.4%) 등도 증가했다.

반면 국립전파연구원(-77.8%), 농식품공무원교육원(-51.4%), 해양경찰연구원(-35.3%), 한전KDN(-22.7%), 한전(-19.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10.8%) 등은 우선구매액이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온실가스 감축·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우수

한전KPS는 “최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CDP Korea Awards’에 참가해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매년 심사를 통해 우수한 국내 기업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전KPS는 올해 심사에서 산업부문 내 상위 4개 기업에게 수여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로 선정됐으며, 이번 심사를 통해 수상한 기업은 전체 41개사로 평가 참여 기업 중 상위 5% 수준이다.

한전KPS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자율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3자 검증하는 등 매년 환경경영을 고도화하고, 기업차원의 ‘환경경영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공급망 확산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과 발전산업의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국내외 노후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및 안산시 수소소비도시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한전KPS는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CDP, S&P CSA 등 글로벌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국내 최초 ‘장기 배전계획’ 수립…분산에너지법 본격 대응

올 하반기 공개 예정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국내 최초로 ‘장기 배전계획(2028년)’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으로, 3년 이하 단기 중심이던 기존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한 5년 단위 종합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분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전체 발전원의 17% 수준인 26GW(기가와트)에서 오는 2028년 전체 발전원의 20% 수준인 36GW로 40%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기존 전기사용자 외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이용하면서 분산에너지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95%는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호남권에 집중돼 있는 태양광이 향후 영남권 등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 상황에 맞는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이며, 한전은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분산에너지 확대 전망을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장기 배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중으로 지역별 배전망 증설 정보와 운영 강화 방안, 신산업·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주요 추진 정책을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전은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 체계를 구축해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반 마련 등 국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aT,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원회 개최…혁신과제 공유·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aT의 혁신 방향 추진 계획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aT 혁신자문위원회는 농어촌·농어민 발전, 생산·가공 분야 사업기능 강화,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 기후변화 대응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식품영토 확장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조직·경영, 정책·예산, 생산·수출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번 정책·예산 분과 회의에서는 신제품 개발, 저온 비축기지 구축, 유통구조 개선, 식품영토 확



장 등 aT의 주요 혁신 과제를 공유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일상화된 기후변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인구감소 등 농·어업과 관련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 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aT의 기능 확대 및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등급제 도입 이후 최초 2등급 획득 안전관리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등

한전KDN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주관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2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전국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 심사단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취약분야 사고예방 노력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한전KDN 역시 강화한 평가 기준에 맞춰 ‘안전

최우선’을 경영방침으로 내걸고,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주력한 끝에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최초로 2등급 획득 성과를 냈다.

한전KDN은 특히 최우선적으로 안전관리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한전KDN은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인 안전관리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성과는 ‘안전 최우선’이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